

# “항상 도전하는 남편 위해 특별한 밥상 차렸죠”

### 오광숙씨 남편 희수 기념 음악회·전시회 기획 박창용씨 색소폰 연주하고 수채화 20점 전시



빨간 나비 넥타이에 초록색 바지를 멋지게 차려입은 주인공 박창용(77)씨가 색소폰 연주를 들려줬다. ‘행복이란’ 등 아름다운 멜로디의 곡들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곡이 끝날 때마다 ‘브라보’ 소리도 터져나왔다.

지난 28일 광주시 동구 학동 클래식 음악감상실 ‘다락’에서 열린 이날 음악회는 아내 오광숙(65)씨가 기획했다. 결혼 생활 43년. 오씨는 평생 가족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었던 남편의 희수(喜壽)를 맞아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었다. 가족 여행이나 식사 모임과는 다른, 뭔가 의미 있는 것을 생각했다. 그때 아직도 현역으로 사업을 하는 남편이 그림을 그리고, 색소폰을 배우며 늘 ‘문화’와 함께인 게 떠올랐다. 음악회와 전시회를 열면 어떨까 싶었다. 주변에 의견을 물으니 “멋진 생각”이라는 격려가 많았다.

지난해 연주회를 보러 가서 알게 된 다락 공간을 빌리고 행사를 준비했다. 음악회와 함께 남편이 그린 수채화 20여점을 선보이는 전시회도 준비하고 작은 와인 파티도 마련했다.

“가족들의 버팀목이 되어준 데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남편의 또 다른 삶을 이끌어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사업 때문에 바쁘게 생활하면서도 무언가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을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색소폰 연주와 그림은 그 결과물이니 소박한 행사를 열어도 좋겠다고 싶었죠.”

박씨는 “아내가 준비하지 않았다면 음악회며, 전시회는 꿈도 꾸지 못했을 거”라며 “내가 하는 일을 걸어온 길,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이런 근사한 행사를 열어

준 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도의원을 두 차례 역임하고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박씨는 30여년 전부터 연주회에서 활동했다. 10여년 전부터는 수채화를 그리고 있다. 그는 2년 전 색소폰을 새롭게 배우기 시작했다.

“제가 가장 몰랐던 부분이 바로 음악이었고, 색소폰을 배우면서 힘든 점도 많았죠. 기억 나는데 배우듯 천천히 배우면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느낌을 받았습시다. 새로운 것을 공부하다 보면 사람이 늙어가는 걸 몰라요. 새롭게 개척하는 맛이 있어요. 어제가 지나가는 게 허무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내일이 늘 희망적이죠. 어느새 세월이 가버렸구나 이런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습시다.”

이날 프로그램 중에는 올해 78살된 처형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무대도 연출됐다. 박씨의 색소폰 연주에 맞춰 처형은 ‘대니보이’를 원어로 불렀다. 조카 손녀는 할아버지를 위해 가야금 병창도 들려줬다. 마지막에 박씨가 연주한 곡은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였다.

“음악회를 보러 온 친구들이 자신들의 삶을 한번씩 돌아봤다고 해요. 이 나이에 도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모습이 부럽다고 합니다. 아내들은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했다고 하네요. 우리 가족 역시 아버지의 새로운 모습을 봤다며 행복해 하더라고요. 제가 일류 음악가나 화가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번 문화 행사를 통해 작은 감동과 새로운 감수성을 안겨준 점은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행사들이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우리 사회를 맑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파격의 앙상블...편안한 클래식

### 퀸즈 퀸텟 리사이틀...6일 금호아트홀

지난해 창단한 퀸즈 퀸텟은 관객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클래식 음악을 표방하는 클래식 퍼포먼스 그룹이다. 플루트, 클라리넷, 비올라, 첼로, 피아노 조합은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앙상블로 특히 전문 편곡자인 임효성(이음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상임 작곡가)씨가 악기 조합과 편성에 맞게 편곡한 음악을 연주한다. 퀸즈 퀸텟 리사이틀이 오는 6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비제의 ‘카르멘 조곡’, 생상스의 ‘타란텔라 작품 번호 6’, 히차투리안의 ‘샤브레 댄스’, 베토벤의 ‘비올라와 첼로를 위한 듀엣 C장조’를 들려준다. 피날레 곡은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이다.

멤버는 플루트의 김윤희, 클라리넷의 박소희, 피아노의 백승유, 바이올린의 임지선, 첼로의 김지남씨다. 티켓 가격 전석 1만원. 문의 010-8625-641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할걸요

### 풍물세상굿패마루 ‘구정놀이’... 4일 전통문화관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4일 오후 3시 광주문화관 서석당에서 열리는 토요 상설공연으로 풍물세상굿패마루(대표 진준한)의 마당판놀이 ‘구정놀이’를 선보인다.

리는 버나 돌리기가 펼쳐진다. 또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설장구와 호남, 경기, 영남의 풍물굿 가락을 모은 ‘삼도사물놀이’ 연주가 이어진다.

‘구정놀이’는 장구재비, 복재비, 징장 이들이 저마다 기량을 한껏 뽐내는 공연을 말한다. 공연자와 관객이 민요와 추임새 등을 배워 판을 흥겹게 열어주는 열림터를 시작으로 놀이꾼의 재담과 익살스런 연기로 챗바퀴나 대접을 막대기로 돌

한편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전통문화관 토요상설공연은 무료이고 누구나 관람 가능하다. 오는 11일 토요상설공연은 진도북(춤)보존회 내드름 ‘아름다운 동행’ 공연이 펼쳐진다. 문의 062-232-159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군인·청소년 멘토 되어주세요

### 문체부 ‘인생나눔교실’ 봉사단 모집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올해 ‘인생나눔교실’에 참여할 멘토 봉사단 250명의 공개 모집에 나선다.

‘인생나눔교실’은 선배 세대와 새내기 세대간 인문적 소통을 통해 풍부한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해 나가는 쌍방향 지도(멘토링) 프로그램이다.

국군병영(150개소), 자유학기제 시행 중학교(40개소), 지역아동센터(40개소), 보호관찰소(20개소) 등 군 장병 및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기관별로 약 8회 내외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만 51세 이상 어르신이나 30~50세 사이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와 경험자 가운데 의지를 가진 이는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제주를 포함한 호남권 등 5개 권역별로 50명씩이며, 서류와 면접을 거쳐 선발된 이들은 6월부터 12월까지 거주 권역 내 기관에서 활동하게 된다.

문의 02-7393-999~8.

연합뉴스

## 소촌아트팩토리 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

광주문화재단은 소촌아트팩토리 리모델링공사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서울의 건축사사무소 에이엘엘·씨인크 공동작품을 선정했다.

이번 설계공모는 지난 1월 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으며 3개 작품이 접수, 건축사사무소 에이엘엘(대표 김동규)·씨인크(대표 권순엽)가 공동제안한 작품(조감도)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당선작은 컨테이너의 독특한 공간적 특성을 재해석한 디자인 독창성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소촌아트팩토리는 5월 중에 세부적인 실시설계 계획을 마련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주작’은 건축사사무소 미가온(대표 이순미)이 제안한 작품이 선정, ‘가작’은



건축사사무소 플레이스(대표 이형주)가 제안한 작품이 선정되어 각각 상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수여했다.

한편 소촌아트팩토리 프로젝트는 사막한 산업단지인 소촌농공단지에 위치한 관리사무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매력적인 문화예술거점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062-670-7492. /오광록기자 kroh@

우리가 꿈꾸는 세상  
서남권의 중심호텔

## 목포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모든 분들의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국내 외·귀빈과 V.V.VIP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치뤄내어 서남해안 관광산업과 목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상그리아호텔 홍보대사 김연자·김성환

평화광장과 영산강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탁트인 전망과 내집처럼 편안한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최신시설과 고급인테리어로 새롭게 탄생한 웨딩홀! 여유로운 시간, 하루 한달만 예약!

웨딩 및 피로연 가족모임 각종 연회 세미나 들뜬치 등

###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SHANGRIA BIACH TOURIST HOTEL

530-390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 79(상동)

예약문의 (061)285-0100